

(붙임1)

행복팀 투자사기 피해 신고관련 협조사항

I. 추진배경

- 현재 행복팀 투자사기 피해자들은 대부분 피해사실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, 팀장급들이 피해자들을 회유·협박하여 피해신고를 방해 및 합의를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신고 및 민사소송 등 적극적인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데 있어 소극적인 상태.
- 특히, 2. 9. 경찰 수사결과 발표 후 다수의 가족들이 경찰서를 방문하여 막연히 수사관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설득을 부탁하고 있는 실정.

II. 경찰의 피해신고관련 조치사항

- 경찰청에서는 창원중부경찰서의 요청으로 추가 피해자(농아인)확인 및 기초조사를 한국농아인협회(각 지부)와 연계하여 주거지 인근 경찰서에서 피해자 진술 및 증거 제출 가능토록 지시 ⇒ 한국농아인협회 해당지부와 사전연락 후 수화통역사 지원 요청
- 피해자 조사과정에 피의자들의 보복범죄 유무 반드시 확인 요망
- 기초 조사완료 후, 창원중부경찰서에서 이송 받아 수사진행 예정

III. 당부사항

- 한국농아인 협회에서 회원들 상대 적극적 홍보요청 요망

- 행복팀 아파트·공장 건설 등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됨

- 행복팀 총책은 회원들이 투자금으로 전달한 돈으로 고급 전원주택에 거주하고, 고급 외제차 20여대를 수시로 바꾸어 타고 다니며 수백만원대를 호가하는 명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누린 것으로 확인됨

- 누구로부터 얼마를 투자받았는지에 대한 장부가 없어 투자자와 피해액을 정확하게 알지를 못함.

- 총책·대표 조사시 사업의 수익금이 아닌 회원들이 투자한 돈을 고급 리무진, 단체 행사비용, 단체복 등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

- 대다수 피해자들은 투자금을 건네고 계약서라든지 영수증 같은 증빙서류를 일절 받지 않아 본인들도 정확한 피해액을 알지 못함.

- 경찰에 피해 미신고시 민사소송·배상명령 신청 등 피해회복이 어려울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